

좋은 사람들의 좋은 글을 보냅니다..
오늘의 아침편지

★ 짐이 무거워 지는 이유 ★

앞집이 무거워진 이유는

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의식하는 내 생각에 있었다.

‘고상하게’ ‘멋스럽게’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는,

그 생각을 접고 나니, 짐을 다시 꾸리기가

훨씬 쉬워졌다.

- 서영은의《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중에서 -

* 여행을 떠날 때는

언제나 짐싸는 것이 문제입니다.

짐을 싸는 것도 경험이고 기술입니다.

여행 중에 마치 ‘패션쇼’라도 할 사람처럼

짐을 꾸리면, 여행 끝날까지 고생하게 됩니다.

인생의 여행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짐이 자꾸 무거워집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 이 그림을 내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해요



광양사랑의교회

<http://kysarang.org/>

한국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국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로 이 땅을 덮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구제하며 전도합니다.
한국교회는 전국을 경험하며
전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는 이와 함께 울고
웃고 있는 이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 속 같은 한국교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로 나가서 주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세요.
이 아름다운 한국교회 중 하나인
광양사랑의교회를 소개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순천노회 광양남시찰 소속
설립일 : 2004.4.12
545-881 전남 광양시 중동 1617-10번지
<http://kysarang.org/> www.smileman.info
☎ 061-793-1294(교회) / 794-7130(사택)
담임교역자 : 웃는사람 라종렬목사 (010-5686-3626)

• 광양사랑의교회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령님이 충주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꿈꾸시며 성령님이 충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광양사랑의교회의 꿈입니다

• 광양사랑의교회는

모든 성도가 매일 성경(성서유니온)묵상지로 매일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이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같은말 같은마음 같은뜻 같은열매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1:10)

• 광양사랑의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과 21C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날예배	주일오전 11시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전 9시
청소년부예배	주일오전 9시
삼일밤예배	수요일오후 7시30분
민들레주부목상모임	금요일오전 10시
목상나눔모임	나눔터별 경향시간
화요성경학교	매주화요일 오전10시

• 광양사랑의교회가 후원하는 곳

국제비전선교회 김경식선교사(스리랑카) SU 에스라



우리의 죄악이 주를 못박히게 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가리는 도구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들을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전도편지

나를 알아가는 이야기

나이가 들어 갈수록 딱딱한 책보다는 이야기 책이 좋아집니다.
긴 이야기속에 여러 사람의 인생이 들어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여다 보다보면 삶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주인공들에게 그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동겨 줄 수 있을만큼 해결책이 훤히 보입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가끔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옆에서 들여다 볼 때는
내게 와서 맘을 털어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귀뜸해 줄 말이 있습니다.
비록 내 인생 경험이 좁아 터지긴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 속의 문제에는 답이 안보일 때가 많습니다.
결에서 훈수 들어 줄 사람이 필요한 순간이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한나, 사울, 다윗,.....
모범적인 이야기도,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과 현실을 재로삼아
구원의 일을 해나가시는 방법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들의 삶에 비추어 나의 삶을 읽는 법을 배워갈수록
그 이야기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의 삶 속으로,
인생의 진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이끕니다.

나 이상의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부담스런 시선에서도
나 이하의 나를 보고 마뜩찮아 하는 눈길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들이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 들여진 것처럼
오늘 여기 나의 모습도 그대로 받아 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사건에 줄거리와 결을 부여해 주는 것이
다름 아니라 그 사건 하나 하나에 음으로 양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것을 알고
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 있음을 믿고
그 흐름에 나를 맡기고 나면 정답이 보입니다.

예수믿으세요.

- 글쓴이 서정희 ☺

“예배”는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주일오전 11:00

경배와 찬양	10시45분부터 찬양합니다	다같이
예배의부름	찬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참회의기도	영광송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3절만	다같이
대표기도		문숙희집사
찬양	찬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다같이
말씀선포	잠언 27:1-13 충성된 권고의 아름다움	라종렬목사
결단&합심기도	찬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축도(강복선언)		인도자
나눔&환영		성도의교제

주일오후찬양예배

주일 오후2시
주기도문11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비지께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7:30
묵상나눔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30
잠언강해

• 나눔&환영 *Sharing & Welcome*

■ 6월 주일낮예배 대표기도자 안내 ■

1주:목회기도 / 2주:박동석집사 / 3주:문숙희집사 / 4주:박사라권사

* 새가족 환영 :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면담이 있습니다.

* 꼭 매일성경이 아니도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은 묵상해야 합니다.

- 묵상은 사랑의 소통이다 _ 박대영목사의 <묵상의 여정> 중에서

* 예배안내 : 다음 주는 '나눔과 감사의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 기도제목

- 서성님집사님의 딸 수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 교회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 디아코노이(섬기는 사람들) 묵상나눔 모임

- 매주 수요일 오전10~12시 본교회에서

* 책사랑(冊舍廊) 슬로레(Slow-Slow Reading)모임 안내

- 매주 목·저녁, 금·오전·저녁에 진행되는 천천히 책읽기

